

요동치는 대선판도... 박-문-안 초접전 양상

후보검증 공방·野단일화 향배에 달렸다

박-안, 박-문 양자대결 옆치락 뒤치락 혼전

안 후보 대선완주 의사, 단일화 속도 어려워

연말 대선이 8일로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는 갈수록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초접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44.7%)와 안 후보(47.4%)의 지지율 격차는 2.7% 포인트였으나 아산정책연구원-리서치앤리서치(R&R)의 지난달 29~31일 조사(1065명·95% 신뢰수준에 ±3.1%)에선 40.7%대 49.1%로 격차가 8.4% 포인트였다.

특히 국정감사를 계기로 날로 격화되고 있는 후보검증 공방전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야권 단일화의 향배가 카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 후보 간 검증 공방이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인 야권 단일화의 진로도 불투명해 대선정국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 후보와 문 후보, 박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각각 지지율이 47%로 동률하게 나타났다.

박 후보의 경우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외부 인사의 새누리당 영입이 표 확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내부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대선판도 변화의 1차 변곡점으로 여겨졌던 추석 민심은 요동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이 안 후보의 우위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는 넓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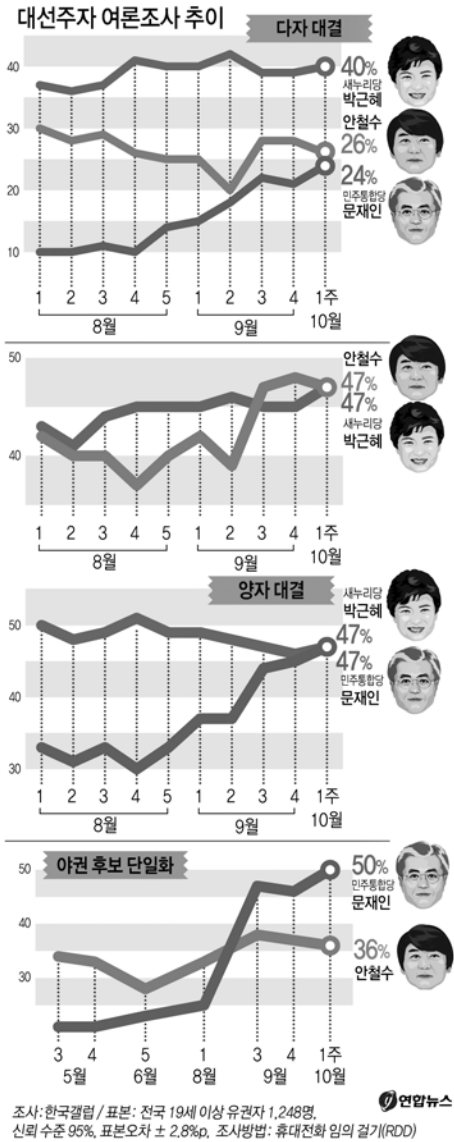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 역시 옆치락 뒤치락하면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46.4%대 46.1%)와 SBS-TNS코리아 조사(46.4%대 44.6%)에선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으나, 아산정책연구원-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42.6%대 46.2%로 문 후보가 3.6% 포인트 차로 우위를 점했다.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안 후보 측은 거리를 두면서 대선완주의사를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지난 1일 조사(1000명·95% 신뢰수준에 ±3.1%)에서 박 후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사방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비리 인사·철재 정치인 논란 속

새누리 등지 뜬 한광옥 전 DJ비서실장

안대회 당 쇄신 특유장 무분별 영입 사퇴 시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5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캠프 합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70)가 지난 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호남 정치권의 상징성이 취약한 것을 떠나 정치적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철재' 논란과 함께 DJ 정권을 욕보이고 있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의 영입은 박 후보의 국민통합 캠프가 미래적 시각보다는 과거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 영입에 대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안대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쇄신 이미지를 깨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원장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성 있는 공약 등으로 호남에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진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정통 민주당'을 창당,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이다. 동교동계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김 전 대통령께서(하늘에서) 호령을 내리시겠다. 그것은 길도 아니고 김 전 대통령 일생과도 어긋난 길"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 이외에도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 합류에 대해 냉소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DJ 정부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린 인사들이 대선 시즌을 맞아 걸음으로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한자리' 욕심을 부리

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소위 동교동계로 자처하며 과거에 한 자리 했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 후보 캠프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며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의 박 후보 캠프 합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오히려 호남 정치권을 욕보이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은 시대정신이다. 지역 갈등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을 전향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박 후보와) 합의를 봤다"며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진실·화해 위원장'에 유인태 안철수 후원회장 맡은 소설가 조정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선대위 산하 민주캠프 내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 유인태(사진)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다 이어 7일에는 시인 신경림, 소설가 공지영 씨 등을 포함한 멘토단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화해 위원회는 불행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문 후보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의 멘토단장인 유인태 의원은 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한 멘토단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소설가 조정래(사진)씨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 안철수 캠프는 지난 5일 조씨를 후원회장으로 선임하고 조씨 명의의 후원회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후원회 캠프를 통해 "안철수를 선택한 것은 국민이고 그는 그 부름에 응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면서 "이것은 세계 최초의 한국형 참

민주주의 탄생"이라고 후원을 당부했다. 그는 또 "안 후보는 걸어온 다리를 불태웠다"며 "후퇴란 없이 오로지 정진뿐이라는 결의이자 다짐이다. 안 후보를 힘껏 당기고 밀자"고 강조했다.

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의 저자인 조씨는 지난 8월 안 후보를 만났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도 참석하는 등 안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안 후보는 559억7700만원으로 추경되는 이번 대선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의 5%인 약 28억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안철수 대선 캠프 관계자도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과거 인물을 기용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며 "미래적 관점에서 현실

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전격 회동한 정몽준 전 대표 등 비박계 인사도 주요 직위에 포진시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친박 2선 후보론의 대상으로 지목된 최경환 비서실장이 국민에게 전대위 인선 발표에 즈음해 자진 사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성준 캠프 공동대변인은 지난 5일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유 위원장의 임명 소식을 전한 뒤 "진실과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매물건에 투자하십시오!

투자상담

1억투자시년1200만원지급
제1순위근저당/가등기보장
기간:1년정도
친절상담 H.010-4667-9300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교육/임장비등회비있음
단독/공동투자가능
전문상담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관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순도곡(원천·모뎀) 대3234㎡, 244280㎡ 감정가 42억93천 최저가 9억7천	화정동(예시정) 대1094㎡, 244489㎡ 감정가 41억9천 최저가 21억2천	두암동(목욕탕) 대570㎡, 121256㎡ 감정가 12억9천 최저가 5억9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4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쌍촌동(원룸) 대294㎡, 24494㎡ 감정가 5억9천 최저가 3억7천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262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2269㎡ 감정가 8억9천 최저가 4억4천
--	---	---	---	--	---	--

유통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 ▷ 대지 91평 ▷ 건물 303평 ▷ 감정가 10억 ▷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 ▷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 감정가 99억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담양(금성) (공장) ☞ ▷ 대지 1482평 ▷ 건물 299평 ▷ 감정가 7억1600만 ▷ 매매가 3억 5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미스포텍) ☞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감정가 39억8천 ▷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예시정) ☞ ▷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감정가 41억5천 ▷ 매매가 25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충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화순도곡	대3234	244280	42억93천	9억7천	4층목욕/숙박	소태동	대561	241439	27억7천	17억7천	7층숙박	담양(금성)	대1094	244489	8억2천	5억7천	2층공점
화정동	대1094	244489	41억9천	21억	8층예시정	해남(원룸)	대1582	29333	49억2천	29억2천	3층숙박	해남(원룸)	대2084	212386	10억	1억9천	2층공점
대안동	대330	21254	4억4천	2억2천	단층예시정	화순도곡	대471	2464	3억9천	2억2천	3층숙박	나주(원룸)	대3958	212053	15억	8억7천	2층공점
두암동	대570	121256	12억9천	5억2천	4층점점점	쌍촌동	대333	21314	13억1천	7억9천	5층숙박	무인텔	대11028	252868	49억	18억7천	3층공점
수원동	대651	212386	13억9천	5억7천	4층상가	산안동	대372	21198	12억2천	4억9천	5층숙박	합평고	대3102	216556	139억5천	69억4천	단층공점
산안동	대4706	21123	18억2천	12억7천	2층상가	산안동	대227	21004	795천	393천	5층리빙텔	나주(원룸)	대29710	21828	1793천	11억	3층공점
목포(상)	대1786	24408	4억8천	2억1천	단층수원텔	순천(상)	대330	2951	698천	292천	4층도합	영광(원룸)	대8551	214238	6894천	2294천	3층공점
보성	대685	21763	7억2천	1억8천	2층상가	재령	대36	21207	497천	199천	3층도합	원주(원룸)	대4447	212612	10억	495천	단층공점
전북(상)	대8076	235004	25억	10억	2층물류고	나주(상)	대46	2148	198천	8천	1층물류부	장유(원룸)	대4722	212337	10억	395천	2층공점
전주(원)	대665	21988	11억4천	5억8천	2층-이트	진안(상)	대1749	212833	20억	69억2천	3층숙박	군산(원룸)	대4297	23196	3295천	16억	2층공점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원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공장,예식장,빌딩,토지,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